# 쟁점 묶고 週 2회 변론…3월 13일전 '빠른 결론' 주목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헌재 탄핵심판 심리 '속도'**

## 이번주 준비절차 마무리
## 내주초 검찰 수사기록 확보
## 뇌물죄 증거 싸고 공방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데다 조기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까지 연쇄 파장이 미치게 돼있어 헌재도 심리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헌재는 27일 열린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달 30일 3차 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일과 5일 1·2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주에 두 번의 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한 재판이 끝난 뒤 다음 재판까지 2일에서 4일의 시간만을 준 것이라 법원의 '집중 심리'와 유사한 일정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한 주에 한 차례 기일을 여는 경우도 빠른 진행에 속한다. 따라서 이같은 심판 초반에 속도를 내겠다는 헌재의 복안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선 헌재가 1~2주 정도에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 측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현재의 주 2회 변론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3월 13일까지 약 20회가량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도 외부에서 바라는 '빠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정치 일정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모두 최순실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곧 확보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일부를 증거로 쓰고 쟁점을 압축해 변론 계획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증거 등에 대한 양측 합의가 미진하거나 일부 증인이 탄핵심판정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이 공전할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되면 일정은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결국, 확실한 변론 일정의 윤곽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기록 중 공정한 수사를 한 부분은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동의 할 것"이라고 말해 주요 쟁점과 핵심 증거를 둘러싼 부분에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뇌물죄 성립여부다. 또 이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둘러싼 부분에선 청구인(국회)-피청구인(대통령측) 간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즉 미르-K스포츠 설립과정에서 연루된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기금 출연 요구를 전경련으로부터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또 돈을 내지 않은 기업에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는지, 출연하지 않은 경우 의사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관해선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도 쟁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호남의 미래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비전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선후보와 함께 지속 가능한 호남발전 방안 만들겠다"

##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 총출동…광주서 '호남비전위' 현장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호남비전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야권의 텃밭인 광주를 찾았다.

추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내년 호남 예산을 챙기는 데 적극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비전위원회의 성과 등을 내세우며 '호남 구애'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의 미래,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호남비전위원회 현장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호남비전위원회는 추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맡는 당내 기구로, 당내 비중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양향자·김춘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기동민·김현미·백재현·이개호·진선미·홍영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추 대표는 "당 대표 출마 때 약속했던 호남비전위원회를 설치했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내년도 호남발전예산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우리당의 대선후보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호남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전통적 지지기반에서 경쟁하는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제가 대표로 있는 한 계파 정치는 없다"면서 "우리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다면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앞서 광주를 방문해 '문재인 계파 정치'를 언급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통합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호남민심을 경청하며 호남의 미래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광주·전남·전북 현안예산 확보내역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장회의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민석 특보단장, 안규백 사무총장, 호남비전위원 등도 참석했다.

안 지사는 인사말에서 "자치분권은 단순하게 정치와 행정의 분권에 머무르지 말고 경제적 분권으로까지 넘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호남의 한과 지역적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고자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호남비전위는 오후에는 광주 소촌산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장소를 옮겨 중소기업 대표자 31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상경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헌영 "박대통령 퇴임후 K재단 이사장 내정" 폭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의혹은 국회 청문회나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이 미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입을 통해 의혹 해소와 관련된 방증이 하나 둘씩 흘러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증인 중 하나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이쪽(K스포츠)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에게서도 그렇게 들었고, 나와 노승일(전 K 스포츠 부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돈도 목적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지난 26일 국정조사 특위의 구치소 청문회에서 2014년 4월 16일 앞뒤로는 박 대통령 일정이 빽빽했는데 유독 그날만 일정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날 관저에 머물렀던 박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그는 "세월호 당일날 박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서 평상시대로 근무하면서 서면이나 전화로 보고 받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사는 일정이 있는 날엔 오전에 와서 머리를 하는데, 그날은 밖에 나갈 것 같아 콜을 해 머리를 했고, 그 외 다른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한 "당시 점심을 먹으면서 TV에 전원구조라고 나오길래 당시 안전행정부로 부처 이름이 바뀌면서 큰 사고가 나도 다 구조해서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오후 2시께와 5시께 두 번 박 대통령을 대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2시가 지나 2시 말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걸 깨닫고 관저로 가서 대통령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 직접 만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 주호영·정책위의장 이종구

개혁보수신당(가칭)은 27일 초대 원내대표에 영남권 4선 주호영 의원, 정책위의장에 보성 출신의 수도권 3선 이종구 의원을 각각 합의 추대했다.

새누리당 탈당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신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로 정식 등록했다.

주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사시 24회)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뒤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으나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후 복당했다. 경제 관료 출신(행시 17회)의 이 정책위의장은 17대 총선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인 뒤 18대 국회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20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와 함께 신당은 새로운 '원내 4당 체제'에서 원내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할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정양석 의원을 추대했다.

신당은 또 9개의 창당추진팀을 구성하고, ▲인재영입팀장 김성태 의원 ▲정강정책·당헌당규팀장 권성동·김세연 의원 ▲전략기획팀장 김영우 의원 ▲당무구성팀장 홍문표 의원 ▲공보팀장 황영철 의원 ▲디지털정당추진팀장 이학재 의원 ▲정책연구팀장 이종구 정책위의장 ▲법률지원팀장 김재경 의원 ▲집행팀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각각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호영

이종구